

2018년 8월 11일 "(참된 공동체 2) 한 마음을 품어"(빌 2:1-5)

<도입>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고, 갈등(분열)을 겪는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근본적인 접근으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바울은 좀더 자세하게 내부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복음 쉽고 분명한 길

복음을 깨달으면 삶의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어떤 세상방식으로도 아닌 복음의 방식을 행함에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방식(하나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 (1) 2:1 성도에게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문장은 if 라는 조건문으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조건문의 다양한 용례를 볼 때 Because(왜냐하면)라고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 (2) 2:2 1 절을 전제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을 이루어 바울(모두)의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 (3) 2:3-4 구체적으로: 경쟁심과 허영으로 말라, 겸손함으로 하라,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보아주라.

이것이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주에 언급한 세속적 하나됨, 즉, 군대식으로, 독재체제로, 이념을 투철하게 심어서,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며 애쓰다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여 세속적 하나됨의 길을 택하면서 주님께 도와 달라고 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고 행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실천하기를 강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교회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말씀 공부, 목장 모임, 소그룹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지하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3 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권면하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2] 하나됨을 이루는 길

- (1) "경쟁심(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경쟁심은 비열한 이기주의를 뜻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 높은 뜻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과 주장을 지키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다른 형제자매가 복음을 사는 것을 포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자만심(pride)입니다.

- (2) "겸손한 마음으로"

\* 엡 4:2 과 골 3:12 -> 겸손으로

모든 불화의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지만, 모든 조화 뒤에는 겸손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지 못하도록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상대에게 주신 가치를 존중할 때 하나됨을 이룹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자나 죄인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치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막 10:46** 이하 바디매오(눈먼 거지)가 예수님께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무시 당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그의 믿음을 최고로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디매오 외에도,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을 대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분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주제는 다음 주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3)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 ㄱ. 나는 최근에 누구든지(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나보다 낮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 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의 의견을 따르며 협력한 적이 있는가?
- ㄷ. 그랬을 때 새롭게 어떤 느낌과 축복의 경험을 가져보았는가?

그 사람만 대하면서 축복의 단계까지 가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존중하시고 우대하시는 지를 인정할 때만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길수 있을 것입니다.

(4)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기 일이 먼저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줄 여유가 없을 정도라면 하나됨을 이루는데 문제가 됩니다. 늘 자기 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위해서도 할당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형편과 조건이 좀 나아져도 변하기 어렵습니다.

<맺음>

본문은 하나됨으로 향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쁨이란 삶의 활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기뻐하고 또한 그 방식대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서로에게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됨의 길 위에 비추이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됨이 깊이 이끄는 축복은 기쁨입니다. 나는 교회, 가정, 직장에서 하나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